

2015년 10월 18일 주일설교

와싱턴 한인교회 김영봉 목사

제자됨을 허무는 열 한가지 사상 (4): 자본주의 (Capitalism)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Within Us And Through Us)**

사도행전 2:43-47

2016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 (democratic socialist)라고 부르며 미국의 망가진 자본주의를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본주의는 미국인들이 최고의 여기는 사회 경제 체제로서 그 핵심가치는 ‘개인의 자유’를 무한히 보장해 주는 체제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는 곧 ‘욕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욕망을 무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제입니다. 반면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함께 전체의 행복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욕망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적절한 조절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체제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보다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더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며 모든것을 국가가 결정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는 자본주의자일까요? 사회주의자일까요? 아니면 공산주의자일까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 장을 근거로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창 1:28)**.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창 1:27) 무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무제한적인 자유를 오용하여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훼손하고 오염시킬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범위를 넘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 이전에 주신 창세기 1:28 절의 말씀이 오늘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 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 기독교가 공산주의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행 2:44-45)**.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핵심은 소유권이 개인에게서 국가로 이전되는 것인데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의 삶에 국가의 개입은 전혀 없었고, 소유권도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후 일어났던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후 성령 충만의 상태가 약화되자 타락한 본성이 고개들어 아나니아와 삽리라 같은 일이 벌어지고, 구제금을 나누는 것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주의가 두 가지 체제를 가장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는 사회주의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사회주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사회주의를 뛰어 넘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신도들에게 잠시동안 실현되었던 그 상태가 예수의 제자에게는 이상이며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곳 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곳’ (place)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장소’나 ‘공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소’ 보다는 ‘상태’ (dimens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그 상태로 옮겨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 상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먼저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롬 14:17)**.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무를 때 우리의 내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들어칩니다. 누구라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는 든든히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며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예수의 제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됩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성령의 체험으로 인해 내면에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평강과 담대함이 들어왔습니다. 이기심이 사라지고 사랑과 자비가 넘쳤습니다. 부유한 신도들의 마음에 가난한 신도들에 대한 긍휼함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신도들의 마음에는 자족하는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곧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의 공동체 안에 실현되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고,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나누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행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추구해야 할 이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더 온전하게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낮아져서 섬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살피며 돕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행 2:47)**.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안에’ 먼저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바깥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장점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아름답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복된 상태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헌신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한 자신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가진 것을 정리해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 주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면에 임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바깥 사회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자신의 내면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주변을 살피며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흔들림 없이 자리잡게 되기를, 이 땅에 세워지는 예수의 자자들을 통해 이 땅의 망가진 자본주의가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좀 더 널리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속회자료> 2015 년 10 월 18 일 주일 설교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Within Us And Through Us)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196 장 (174 장)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2 장 전체를 읽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신도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생각해 봅니다. (10 분)
4. 말씀의 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5.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자본주의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례를 한 두 가지씩 이야기해 보십시오.
  - 3) 망가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두 가지씩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4) 당신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실현되었습니까?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습니까?
6. 기도
  - 1) 미국의 선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망가진 자본주의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일할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 2)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7.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8.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510 장 (276 장)
9.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